

전남, 기후위기 극복 앞장... 친환경농업 인증비 136억 지원

면적당 한도내 80% 경비 지원
경비 부담 줄여 친환경 농업 확산
개인 최대 2건, 단체 건수 제한 없어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13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청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136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업인·단체다.

인증신청비, 심사원 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면적당 한도에서 80%를 지원한다. 면적당 한도는 2ha 이하인 경우 57만 원이며, 2ha 초과 시 ha당 5만 원씩 추가한다. 개인은 최대 2건, 단체는 건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인증수수료 납부 영수증, 친환경

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등을 준비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농업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에 전남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소요되는 인증비의 국

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농림축산식품부에 2023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또한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국고 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2ha 기준 인증비를 평균 52만 원(심사관리비 32만 원·잔류농약검사비 20만 원)으로 적용하면, 전남지역 친환경농업인 2만 5천여 명이 해마다 인증을 취득하는데 평균 130억 원이 소요된다.

전남도는 농가가 친환경농업에 전념하도록 차질 없이 인증비를 지원하며, 친환경농업인도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농산물로 인정받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전국(7만 5천117ha)의 54%인 4만 344ha다. 인증별로 유기농 2만 5천816ha, 무농약 1만 4천528ha다. 품목별로 벼가 가장 많은 2만 7천12ha, 이의 품목은 1만 3천332ha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국내 최초 농촌 테마 '고창농촌영화제' 작품 공모

국내최초 농촌을 테마로 하는 제5회 고창농촌영화제가 '고창의 시선—한국장편경쟁' 부문 작품을 오는 9월1일까지 공모한다.

출품자격은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출품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창농촌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품의 주제는 자유이거나 혹은 농업, 농촌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2021년 8월1일 이후 제작 완성된 러닝타임 60분 이상의 작품만 출품 가능하며, 고창 로케이션 작품 등은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

부산 수영구 해양레포츠 무료 체험교실

부산 수영구는 5월부터 해양레포츠 무료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수영구서평협회 주관으로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에서 5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광안리 SUP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1일 1회 선착순 10명까지 SUP(패들보드)를 무료로 렌탈하여 체험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수영구서평협회로 전화 신청 가능하다.

또한 한국해양소년단부산연맹 주관으로 협성르네상스 아파트 앞 수영강에서 5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카약 및 드래곤보트 무료 체험장을 운영하며, 한국해양소년단부산연맹 홈페이지 내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참가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



경주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았다.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아이가 행복한 도시 만든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이행
아동친화적인법체계정비 등 실천

경주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앞으로 4년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지칭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 이행 기준을 통과한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고 있다. 앞서 경주시는 2019년 5월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수립을 시작

으로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 이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아동권리전담부서 신설, 아동친화적인법체계정비, 아동참여체계운영,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등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2019년 12월 경주교육지원청, 경주경찰서, 시의회등과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을 맺는가 하면, 2020년 6월에는 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아동권리증진 및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과 함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노력해 왔다. /경주=오대송 기자 ods08222@

전남도, 내달 14일 '방문의 해' 선포

'문화가 있는 행사' 개최

전라남도가 오는 6월 14일 목포 유달유원지에서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대내외에 알리는 선포식을 열기로 했다. 방문의 해 주제는 '정경·힐링·안심 쉼터, 전남으로 오세요'다.

전남도는 행사·축제 관련 전문가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방문의 해 선포식 착수보고회를 지난 10일 열어 프로그램 운영, 퍼포먼스 계획 등 영향력 있는 선포식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 2022~2023년을 전남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연말께 선포식을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 19 상황으로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일상회복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날 착수보고회를 열어 선포식 일정을 확정했다.

선포식은 1부와 2부로 나눠 문화가



전남 방문의 해 선포식 착수보고회. /전남도청

있는 행사로 개최할 예정이다. 1부는 전남도립국악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관광 홍보영상 상영, 관광개발 업체와의 투자협약(MOU), 홍보단 출정식, 선포 퍼포먼스를, 2부는 공중파 방송과 연계해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2022~2023 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간 관광안내소 확충, 관광약자 편의시설 개선,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오대송 기자

고성군, 상반기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재난 안전 사업추진 속도

경남 고성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상반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하고, 현안 사업과 재난 안전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역 현안 및 재난·재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교부한다.

군은 ▲회화면 배둔 시가지 침수 예방사업 6억 원 ▲구만천 정비사업 3억 원 ▲상리면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 3억 원 등 총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회화면 배둔 시가지 침수 예방사업

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배둔 시가지 일대의 침수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지에 유입되는 우수를 최소화하고, 농경지 방향으로 우회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구만천 정비사업은 하천제방 유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경지 침수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천의 피해 예방기능을 높이고 주민의 생활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상리면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가림막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성(경남)=이도식 기자

의령군, 작년 대비 인구 늘어... 경남 유일

1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

경남 의령군이 지난해 경남 자치단체에서 같은 시기 기준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22년 4월 말 기준 의령군 인구는 2만6381명으로 지난해 말 인구(2만6322명) 대비 59명이 증가했다.

의령군은 2012년 인구 3만 명이 무너진 뒤 매년 인구가 줄었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늘어났다.

의령군은 모든 정책의 결실을 '인구증가'로 귀결시킬 만큼 인구 늘리기엔 전 부서가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도내 최초로 소멸위기 전담조직인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구성해 지방 소멸 문제에서 민첩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의령판 새마을 운동인 '의령 살리기 운동'을 펼쳐 인구감소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서고 있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여주시 '자원순환 가게' 성황리

여주시는 이순신광장에서 '나눔 행복, 자원순환 가게' 열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순환 활동가,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이 참여해 '에코투게더 업' 가입과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했다.

함께한 시민 100여명은 투명 PET병, 의류, 서적 등 재활용이 가능한 20개 품목을 가지고 나와 무게 측정 후 품목당 단가에 따른 포인트를 적립했다. 종이팩과 아이스팩도 현장에서 각각를 화상지와 종량제봉투로 교환됐다. /여수(전남)=김용환 기자 jiacocom@